

프리미엄 강세...백화점 판매액지수 늘고 대형마트 줄어

‘5년간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

2020년比 작년 각각 11.3% ↑ · 8.7% ↓

백화점, 문화·체험 등 복합문화공간 인기
마트, 온라인 중심 소비 트렌드 변화 영향

코로나19 발생 이후 5년간 광주의 유통시장 소비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다.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대형마트는 감소세를 보이며 업태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5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11.3(2020=100)으로 2020년 대비 11.3% 증가했다.

특히 백화점의 주요 성수기인 겨울철 판매 증

가세가 두드러졌다. 2020년과 2024년의 월별 판매액을 비교하면 2월은 528억원에서 851억원(61.2%)으로 12월은 737억원에서 1천6억원(36.5%)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대형마트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광주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91.3(2020=100)으로 2020년 대비 8.7% 감소했다. 다만 명절 시즌과 같은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났다. 2020년 1월·10월과 2024년 2월·9월의 판매액을 비교하면 1천387억원에서 1천463억원으로 5.5% 상승했다.

이 같은 변화는 소비자 가치 중심의 소비 성향 변화와 온라인 구매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생필품과 가전제품 등 실속형 품목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외출·패션·취미 등 체험형 소비는 백화점으로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8천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개 특·광역시

중 울산(1조6천835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규모다. 판매액 구성비를 보면 백화점 비중은 52.3%에서 56.3%로 상승, 대형마트는 47.7%에서 43.7%로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추세가 나타났다.

7개 특·광역시 기준 2020년 대비 2024년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대전(66.0%), 서울(38.2%), 부산(33.4%), 대구(16.4%)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부산(-13.1%), 대전(-12.7%), 서울(-11.0%) 등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백화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 식음, 체험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도 “대형마트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로 오프라인 매장 매력도가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선호하면서 판매액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새콤달콤 한국 과일, 말레이시아서 매력 발산

aT, ‘K-프레쉬 푸드 유니버스’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5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과 연계해 신선 농산물 전문 팝업스토어인 ‘K-프레쉬 푸드 유니버스’를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팝업스토어는 ▲판매점(포도·배) ▲마켓테스트존(배·포도·사과·고구마) ▲통합조식존(포도·배·파프리카·딸기·귤·키위) ▲F&B존(교촌·설빙·CU) ▲포도존 ▲K-관광존 ▲이벤트존 등 구성된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판매 시식 전시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K-신선 농산물 축제의 장으로 기획했다.

먼저 현지인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신 품종 11개의 소비자 마켓테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 반응을 살폈다.

특히 포도와 딸기, 즉석 군고구마 등을 맛보려는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향후 다양한 신선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현지 최대 신선 수입업체와 포도, 배, 파프리카, 딸기, 귤, 키위 등 6개 품목 통합조식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속 가능한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했다.

아울러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김치명인 초청 김치 마스터 클래스 ▲K-POP 커버댄스 공연/경연대회 ▲태권도 공연 ▲어린이 드로잉 콘테스트 ▲유니버스 여권 스탬프런(Stamp Run)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한국 지역별 다양한 유명음식을 소개하며 행사장을 찾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전기전 aT 수출식품이사는 “말레이시아는 K-푸드와 신선 농산물의 중요한 잠재 시장으로,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국 신선 농산물의 품질과 다양성을 현지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향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시장 전반으로 K-신선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 안전수칙

하나!

둘!

셋!

작업 중 반드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취약한 지붕재 위 덩개 또는 발판 설치

덩개 또는 발판 설치 공간 시,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지붕 추락사고 핵심 예방 대책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KT, 오늘부터 무상 유심 교체 시작 KT가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시작한 5일 서울 KT플라자 여의도역점에서 직원들이 유심 교체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KT는 신청이 초기에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해킹 피해가 집중된 광명·금천 인근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교체를 시작한 뒤 수도권과 전국으로 순차 확대한다. 이날부터 서울 8개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서초·양천·영등포) 구와 경기 9개(고양·광명·군포·김포·부천·시흥·인산·인양·의왕) 시,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19일부터 수도권 및 강원 지역, 다음 달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GICON 지원기업 인지솔루션, 해외 시장 진출 박차

네덜란드 Floating Farm과 기술 협력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추진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5일 “최근 GICON 지원기업 ㈜인지솔루션이 네덜란드의 플로팅팜 홀딩(Floating Farm Holding B.V.)과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로팅팜 홀딩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지속 가능한 도시형 축산 및 농업을 실현하는 세계 최초의 해상 스마트팜 운영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과 스마트팜 솔루션을 실증하고 있다.

㈜인지솔루션은 GICON이 추진 중인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해 2025

년 IP 지재권과 기술 컨설팅 지원을 통해 AI 시장 예측 연계 뿌리작물 지능형 생육 관리 플랫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GICON의 AI 융합 창업기업 사업화 해외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솔루션이 플로팅팜 홀딩과 협력 인연을 맺으면서 성사됐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기반의 자율형 스마트팜 솔루션 개발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공동연구 ▲국제 기술 교류 및 사업화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우중 ㈜인지솔루션 대표는 “자사 전문 분야인 AI와 IoT, 드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로봇 솔루션으로 한국형 AI 농업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한전KDN ‘제어시스템 보안 체계 구축’ 워크숍 개최

한전KDN은 5일 “최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다목적홀에서 사이버 위협 대응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제어시스템 보안 모니터링 체계 구축’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전력·수도·철도 등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제어시스템 보안 모니터링 구축을 위해 추진됐으며 시스템 구축 추진 목표 설정 및 기

관 역할 분장에 대한 논의와 공유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한전KDN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한 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 가이드라인 이해, 시스템 구축 방향 및 소개, 보안 모니터링 기술 개발 트렌드 등을 공유하고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재만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